

제20편 - 제3신앙촌시대(제7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75회)

제20편
제3신앙촌 시대(제7부)
 一. 구세주 출현에 성공한 영모님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三. 승리제단의 주인은 조희성님
 四. 嗚呼悲哉聖壽何短(오호비제성수하단);
 말운론
 五. 외 스피드!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으신가!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희성님

1) 영모님은 구세주가 조희성님이라고 증거하셨다

주해:5) 여기서 영모님은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빨리 거기 가야만 눈물이 안나라는 말씀을 하셨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두 의인의 출현을 알리면서 더욱이 맨꼬리를 태초의 하나님보다 능력과 창조력이 월등하다고 설명하시고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라고 하셨다. 얼마나 기쁜 일시기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쁨을 알리는 것인가? 다음의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주해:6) "조희성이 그제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전도관 교인들은 다들 조희성님을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성님이 마귀가 아님을 깨우쳐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영모님은 분명히 조희성님이 하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다. 영모님은 단상에서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기쁨을 참지 못하며 조희성님을 증거하신 것이다. 기쁨을 잔뜩 담아 보내주겠다고 하

신 내용이 바로 조희성님이 구세주로 출현하시는 데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었다.

주해:7) '조희성님이 하시는 것이 문선명보다 더 쎈 것을 하신다'고 하셨다. 통일교의 문선명씨는 전 세계적으로 큰 역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세주 조희성님의 역사는 문선명보다도 더 월등하게 쎈 역사를 한다고 강하게 증거하신 것이다. 영모님은 수십 년 동안 한분의 구세주를 낳아 출현시키려 그토록 모진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 바로 그분이 영적 아들 조희성님이시다.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희성님을 증거한 영모님은 조희성님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탄복하시는 말씀을 하셨다. 녹음 설교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다. 설교 말씀을 원문대로 기재하다 보니 문장이 좀 이상한 곳이 있다. 양해바란다.

"내가 6000년간을 탄식하면서 사람들을 찾아왔지만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밤잠도 안자고, 문을 찾은 것도 기가 막힌데. 또 죄를 어떻게 씻는 방법도 나온 것이 없는데 네가 해매서 씻는 것조차 다 씻고... 또 이제 셋째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가르쳐 준 데도 없는데 그 많은 수를 네가 노력해서 씻어주기까지 했다. 마귀의 갖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마귀의 세력이 올라가는 것을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도 계속 기도하여 많은 가지들이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났노? 너는 참으로 선택하고 아름답다. 너는 귀엽다. 너는 애처롭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마.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네가 바라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마. 네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소원하는 대로

박태선 영모님은 문선명보다 강력한 역사를 해나갈 구세주 조희성님의 천지공사를 언급하셨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세주의 출현을 광격해 하는 한편 구세주가 인류의 죄를 담당해 나가야 하는 가시밭길을 열라하셨던 것이다.

다 주마. 오늘날 똥구더기같은 것을 맡은 자의 주인공이여"

주해:1) '내가 6000년간을 사람을 찾아왔지만 너같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찾으려고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조희성님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고 감탄하는 말씀이시다.

주해:2)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죄를 어떻게 씻는 방법도 나온데가 없는데... 이제 또 셋째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가르쳐 준 데도 없는데 그 많은 수를 네가 노력해서 죄를 씻어주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은 구세주로 출현하신 조희성님을 감탄하면서 칭찬하는 말씀이다. 조희성님의 그 눈물겨운 인내심을 감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또 셋째문이 나왔는데'는 세번째로 승리하여 출현하신 맨꼬리인 구세주를 말씀하는 것이다. 앞에서 상고해 본 영모님 말씀 중에서 '맨꼬리'란 말씀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맨꼬리'가 셋째문이신 구세주이시다. 또 '어떻게 가르쳐준 데도 없는데 그 많은 수를 네가 노력해서 죄를 씻어주기까지 했다'라는 말씀은 태초의

하나님도 알지 못한 것을 구세주로 출현한 조희성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터득하여 인간들의 죽음죄가 나라는 주제 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 죄를 씻어주기까지 하느냐, 라고 감탄을 하며 칭찬하는 말씀이시다.

주해:3) '갖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마귀의 세력이 올라가는 것을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계속 기도해서 많은 가지들이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를 쓰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났노?'

'갖은 징계를 받으면서도'라는 말씀은 승리하기 위하여 갖은 죽음의 경지를 넘고 넘은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마귀세력이 올라가는 것을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계속 기도해서 많은 가지들이 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노?'라고 하

면서 당신이 낳은 아들인 인류의 구세주에 대해서 정이 넘치는 표현으로 탄복하는 말씀이다.

주해:4) '너는 참으로 선택하고 아름답다. 너는 귀엽다. 너는 애처롭다.'

위와 같이 당신이 낳은 아들 구세주에 대해서 감탄하고 탄복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던 영모님은 드디어 구세주가 얼마나 선택하고 아름답든지 깊은 정을 쏟으면서 '너는 참으로 선택하고 아름답다. 너는 귀엽다.'라고 말씀하신다. 너무나도 귀엽고 아름답고 선택한 구세주 아드님에 대해서 애정어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이 든다. '너는 애처롭다'라고 하셨다. 왜 애처롭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영모님은 수십 년간 해산의 수고 끝에 구세주를 출현시켜 너무나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워서 칭찬과 탄복을 하는 말씀만 하셨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구세주가 출현했다고 해서 엄마의 입장에서 기뻐하기만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서 무량대수 마귀를 소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너는 애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주해:5) 선택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여우신 구세주에 대해서 '너는 애처

롭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영모님을 잘 이해하면서 생각해보자.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영모님은 정말 사랑스럽고, 그러나 너무나도 애처로운 당신의 아들 구세주에 대해서 당신의 가슴을 쥐어짜는 것같은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다 주마.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네가 바라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마. 네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소원하는 대로 다 주마.'라고 하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영모님은 말씀을 하시는지 가슴이 저려올 정도이다. 앞으로 기가 막힌 고난의 멍에를 지고 가야 하는 구세주에게 영모님은 구세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마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주해:6) 이상과 같이 말씀을 하신 영모님은 결국 구세주가 어떤 멍에를 지고 가실 주인공이 되시는 지를 지적해 주신다. '오늘날 똥구더기같은 것을 맡은 자의 주인공이여'라고 알려 주신다. 즉 구세주는 똥구더기같이 더러운 인간들의 죄를 맡아 해결을 해 주실 주인공이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구세주를 향해서 '너는 애처롭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다.

지금 영모님께서 당신이 낳은 아들 구세주님은 조희성님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과 조희성님의 관계는 영적 엄마와 아들의 관계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78회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이치 속에서 자하선경의 남조선에 천지인 합일의 인존(人尊) 하나님이 오시느니라



格菴歌辭 격암가사

貧賤困窮無勢者 빈천궁공무세자야
 神道傳人天道國신도전인천도국을
 男女合體남녀한체 음양도도다
 三位一體天道大降상위일체천도대강
 萬化生朝鮮만화생조선이라
 出陽生陰淺潛출양생음침잠은
 道成德立도성덕립알것느냐
 肉死神生道成人身육사신생도성인신
 不死永生不老道불사영생불로도라
 죽어가는陰道陰도길을 사다가기경영이라
 中入十勝急중입십승급허기자
 多靈山中다회선중대개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道)를 전하노니 하늘나라는 남녀 즉 음양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으니 곧 음양합덕이 되어 있느니라. 음양합덕은 무극대도를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극대도를 크게 내리시어 천변만화가 일어나 조선(한국)을 살리느니라. 양도(陽道)가 나와서 영생의 세상이 열리고 음도(陰道)가 침잠하니(기라 앉으니) 즉 죽음이 세상이 사라지니 불사영생 하나님의 무극대도가 완성되고 이 땅에 지상낙원 이상선경이 실현되는 것을 알겠느냐? 나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마귀가 죽고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됨이요 도통(道通)이니 이것이 바로 불로불사영생(不老不死永生)의 도이니라. 죽어가는 험한 길에서 영생하는 길로 바꾸

어 가도록 계획을 세우나기야 하리라. 중입(中入)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심승의 도(영생의 도)를 빨리 찾아가자. 신선들이 다 모이는 중입의 때가 오느니라.

上帝降臨상제강림不遠불원하니
 全心合力修道時전심합력수도시
 民心裏和민심리화되게되면
 원天下천하가 太平歌태평가라
 失時未動심시말동부디마라
 欲入兩白不得已욕입양백부득이아
 紫霞黃霧자하황무둘러스니
 道路咫尺不知도로지척부지로다
 八人登天火燃中팔인등천화연중에
 路道不通로도불통엇지갈가
 鐵桶철통갓치 잠긴十勝십승
 無數神明防禦무수신명방어하니
 敢不生心감불생심엇지가

머지않아 상제님(하나님)이 강림(降臨)하시니 모두 전심합력(全心合力)할 때라. 천하 만민이 마음속에서 총심으로 화합하게 되면 온 천하가 태평가를 부르리라. 중입의 때를 놓쳐서 마지막에 움직이는 일(말동未動)이 없도록 하여라.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면 양백 심승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양백 심승에는 자하황무(紫霞黃霧) 즉 보라빛 노을과 누런 안개가 둘러져 있어서 지척(咫尺)에 있어도 알 수 없으리라. 불길히 하늘로 치솟고 도로가 막혔으니 어떻게 갈까? 철

통같이 잠긴 심승을 무수한 신명들이 막고 있으니 어떻게 감히 들어갈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는가?

雲霧屏風운무병풍기리우고
 雲梯玉京往來운제옥경왕래하니
 是日仙境十勝시월선경십승인가
 先天秘訣獨信先天비결독신마소
 天藏地秘鄭道승천장지비정도령은
 世人世人이다알소나
 通和四方통화사방범는날의
 尼隱生天생이름이나
 要訴人心四覽요혼인심사람들이
 이길저길분주말고
 良心眞理양심진리찾아보소
 天人同道天人將천인동도십인장을
 世不知而人不知세부지이인부지라

구름과 안개가 병풍처럼 드리우고 구름 사다리로 옥황상제가 있다는 옥경(玉京) 즉 하늘나라를 왕래하니 이를 일러 심승

의 선경(仙境)이라 하였던가? 선천비결을 지나치게 믿지는 마소. 천지(天地)가 감추고 숨긴 정도령을 세상 사람마다 다 알 수 있겠는가? 온 세상이 통화하는 밝은 날이라 해도 정도령이 너의 천한 인생의 이름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이다?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아! 이길 저길 분주하게 찾지 말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곳을 찾아보소. 하나님과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도를 이른 목장군(木將軍=十人將軍) 정도령을 세상이 모르나니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天神)이 내려오심을 사람들은 모르리라.

不信天命誰可生불신천명누가생고
 逆天者亡역천자망이로다
 自此以後人不知자차이후인부지면
 混沌天地火光人間혼돈천지화광인간
 電火劫術人不見也전화갑술인불견야니
 衆生중생을 何以濟何以濟히이제하이제요

定福此時不定福정복차시부정복이면
 來年月日何以生내년월일하이생고
 河圖洛書無可理하도낙서무공리에
 大聖君子대성군자나시도다
 紫霞山中南朝鮮자하선경남조선에
 人生於寅인생어인나온다네

천명(天命)을 불신(不信)하고서 어느 누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지금 이후부터 사람이 천명을 모르고 거역한다면 천지가 혼돈하고 화광(火光)속에서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마지 번갯불처럼 빠르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니 사람

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리라. 수많은 중생들이 어찌 구제하리요 어찌 구제하리요. 영생(구원)하는 복(福)이 정해지는 이때 복(福)을 받지 못하면 오는 세월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무궁한 이치 속에서 대성인(大聖人) 군자(君子)가 나오시도다. 자하선경의 남조선 한국에 천지인 합일의 인존(人尊) 하나님이 오시도다. 천개어자(天開於子) 지벽어축(地闢於丑) 인생어인(人生於寅) 즉 하늘은 자(子)에서 열리고 땅은 축(丑)에서 열리며 사람은 인(寅)에서 나오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재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별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